

제10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6. 5. 25(수) 10:0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 박영화, 설 휘, 신은숙, 양찬제, 유인수, 윤정섭
이성욱, 이성훈, 이해경, 전 옥, 정현숙, 조숙의
호해란
- ◆ 안 건 : 미술작품 5건 15작품(조각 14, 회화 1)
[신규 15건]
- ◆ 결 과 : 승인 12 작품, 부결 3 작품
- ◆ 회의록 확인 : (서명), (서명)

□ 위원 발언 내용

- 금일 심사위원 13명중 13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0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회의 내용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녹취되며 회의록으로 기록되어 시민에게 공개 예정입니다. 본 회의 종료 후 참석 위원 중 2명에게 회의록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확인서명 요청이 있을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작품입니다. 가격이 5억입니다. 가격이 적정한지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형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세련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
- 단순하고 느낌이 좋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적으로 되어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구조검토서는 필수로 되어있습니까?
- 필수는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조검토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심의 시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조건부로 구조검토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1-2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1-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1-3작품의 작가가 이번 심의에 3작품이 나왔습니다.
- 개인적으로 서울시내에서 한 작가가 설치할 수 있는 작품의 개수를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품이 어린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구멍에 손이 끼는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조건부로 구조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기재를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1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경희궁의 형태를 스테인리스로 표현한 것인데 작가가 주로 선으로 작업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좋은 느낌이 듭니다.
- 색깔은 어떻게 입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마 자동차 도장 할 때와 비슷하게 굽는 형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 인근에 경희궁이 위치한 지역특색을 반영해서 벽면을 하나의 캔버스로 삼아 부조 형식으로 한 것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 같습니다.

- 뒷 건물과의 조화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제가 보기엔 이 작품은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철사가 아니고 형태를 레이저 컷팅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라인이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 충분히 보셨으면 2-2번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소나무 형태의 작품입니다.
- 작품이 조금 평범한 느낌이 듭니다.
- 레쉬망으로 씌운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들을 설치할 때 연결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작품의 독창성 등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2-3 작품 보시겠습니다.
- 물속에 띄워진 작품이네요. 주변 환경과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 48페이지와 근경2의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57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위치에 배치된 것이 보입니다.
- 산만한 느낌이 듭니다. 작품의 개수를 줄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2-4번 작품 보시겠습니다.
- 작품이 너무 평이한 것 같습니다.
- 나무 형태의 작품이 2개가 배치되어있는데 높이나 형태의 차이 없이 똑같이 배열되어 있는 것이 단순한 느낌이 듭니다.
- 이 작품의 경우 지방 공사 같은 곳에서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많이 나온 작품입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2-5번 작품 보겠습니다. 이미지 상으로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작품의 크기가 3.7m이네요. 작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 계약된 금액이 있어서 크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이기엔 거대하게 보이는데 가운데 부분이 뚫려있는 상태에서 밑에 세 군데에서 잡아주는 구조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 작품의 심미적인 것은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토에 필요한 투시도 같은 부분에서 사람 크기 등과 비교해봤을 때 심의도서상의 오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상으로도 주변과의 조화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면 2-6작품 보겠습니다. 작품이 건물의 오목한 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답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물과 작품 간의 거리가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 실제 크기보다 이미지를 과장한 것 같습니다.
- 원경을 보면 실제 크기를 볼 수 있지만 보통 근경의 경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경으로 당겼을 때는 조금 과장되게 크게 보일 수는 있으나 원경의 경우를 봤을 때는 실제 크기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제가 봤을 땐 너무 과장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 개인적으로 그 부분의 문제보다 5m가 넘는 작품으로 하부가 좁고 위로 퍼지는 작품인데 속의 골조 등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구조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면을 과장되게 준비하는 것이 관례인지 궁금합니다. 심의위원에게 주는 정보인데 이렇게 과장된 정보를 준

다면 안되고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심의도서상의 작품시공 표기라든지 이미지 등을 실제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래픽 상으로 작품사진을 볼 때와 시공 사진처럼 골조 모양이 들어가지 않아서 실제 완성이 되었을 때 상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그럼 다음 3-1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격에 비해 규모가 큰 작품인 것 같습니다.
- 느낌이 그늘막 제작요청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습니다.
- 아마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기둥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인가요?
- 20페이지 보시면 위낙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형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 가격에 비해서 스케일이 크긴 한 것 같습니다.
- 아랫부분이 심플한 돌기둥이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는데 바닥에서 물이 어떻게 빠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품 자체가 예술성도 있고 제일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밑에 기초를 하는 것도 하중 등을 다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럼 다음 3-2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화작품입니다.
- 그림의 경우 그려진 작품이 들어오는 겁니까?
- 벽에 비해서 작품이 작은 것 같습니다.
- 작품도면과 크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 액자의 크기가 반영되어서 그런 듯합니다.
- 작품크기와 액자크기를 별도 표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함께 되어 있을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차후 심의도서 검토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31페이지를 보고 주변 환경과 작품이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림이 이미지를 보면 벽에 비해 작아 보이긴 하지만 작품자체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오면서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도서가 너무 보기 좋게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은 도서보다 사실과 가까운 도서가 좋은 것 같습니다.
- 다음 3-4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참고로 3-3, 3-4번작품의 작가가 동일합니다.
-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그럼 다음 4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로구 청진지구에 설치되는 작품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의견 없으시면 다음 5번 작품 검토하겠습니다.
- 외국작가인가요?
- 네 외국작가입니다. 현재 작고하신 작가입니다.
-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 참고로 의무설치금액은 4억 정도 되고, 구매한 구매는 14억 정도 됩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서 책정한 감정서에는 금액 26억 정도 됩니다.

- 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는 처음 들어봅니다.
- 외국작가와 작고작가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게 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갖고 있는 소장품으로 심의한다는 부분은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소장품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심의는 가능하지만 위원회에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추가 확실한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금액에 대한 부분도 계약서와 감정서 외에 어떤 근거로 구매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같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에 관한 원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소장품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지을 때 책정된 금액만큼 구매를 한 것이면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소장품에 대한 심의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되도록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소장품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 신규작품으로 새로 설치하도록 권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보셨다면, 토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

<위원장>

- 오늘은 15개 작품 중 2-2번, 2-4번, 5번이 부결되고 나머지 작품이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6년 제10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